

문화 양극화, TV 토크쇼, 신화 및 이데올로기* :

〈웰컴 투 시월드〉의 담론 및 신화 분석을 중심으로**

강금량*** · 백선기****

【 차 례 】

- I. 서 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V. 논의 및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TV 토크쇼에 나타나는 고부갈등을 통해 이 시대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세대 간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를 발견하는 연구이다. 분석대상은 종합편성채널 채널 A에서 방송했던 토크쇼 <웰컴 투 시월드>다. 다양한 주제들 중에 한국의 전통성이 잘 드러나며 일상의 고부관계에서 세대 간 갈등을 명확히 드러낸 회차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분석방법은 범주화 분석, 담론분석, 신화분석 등을 시도하여 이데올로기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배적 사고의 기저에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와 효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으며, 대안적 사고의 기저에는 양성평등 이데올로기와 합리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집안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대립되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있

* 본 연구는 2011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220).

** 백선기 교수의 <사회적 양극화와 문화적 양극화>의 질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연구들 중 하나로서 강금량의 석사논문으로 일부가 활용된 바 있음.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교신저자.

다는 것은 한가정내에서 세대 간에 다양한 논쟁과 갈등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 가능하며 같은 맥락에서 향후 다양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유추 가능하다.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단일 계열체 내에서도 지배적/대안적 사고가 혼재한다는 사실이다. 대립된 사상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주체적 계열관계를 통해 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열쇠어 : 고부갈등, 담론, 신화, 이데올로기, 토크쇼

I. 서론

초기 한국의 TV프로그램은 뉴스, 드라마, 쇼프로 정도의 단순한 범주로도 명확한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그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소재나 주제 등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88올림픽 이후 한국은 국제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문물개방을 진행하게 되고 미디어 역시 이러한 기류에 편승해 선진국 문화를 받아들이며 모방에서부터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시도를 거듭하면서 급성장 하게 된다. 2000년대부터 리얼리티를 강조한 프로그램이 확산되면서 예능 또한 기존 형식의 탈피 및 포맷의 재정비 등을 통해 외부활동(outdoor activity)이 중심이 되는 리얼리티쇼와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버라이어티 토크쇼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TV 토크쇼의 경우 과거에는 정보성과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대담 형식으로 국한하여 제작 되었지만 국제화의 영향으로 오락성과 소재의 특이성을 갖추게 되면서¹⁾ 우리나라 예능프로그램의 대표적 장르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TV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가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1) 나미수·조준모, 「시대 흐름에 따른 TV토크쇼의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 KBS 토크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연구』 15,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79쪽.

는 것이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고부관계, 장서관계 등 가족 내 모든 관계들이 관계자체에서부터 갈등요소까지 다양한 소재가 되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소재들은 그동안 한국인 정서상 일상대화에서도 쉽게 표출되지 않았다. 표면화되지 못하던 소재들이 당당히 TV에서 다뤄지게 되고, 기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오랜 기간 한국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던 가족 사이의 갈등관계가 노출되면서 알고 싶지만 묻기 어렵고 말하고 싶지만 쉽지 않았던 대중의 호기심을 해소시켜주었다. 가족 내의 대표적 갈등관계인 고부갈등이 토크쇼의 주제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그 동안 궁금해 하던 ‘남의 집 속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그들의 요구와 호응에 부합해 나가면서 공감을 얻어냈다. 현재의 토크쇼는 오락적인 측면과 흥미를 강화하여 시청자에게 엿보기라는 가학적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다.²⁾

그 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고부관계를 조명한 TV 토크쇼 <웰컴 투 시월드>를 통해 한국의 고부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재현과 연계된 담화 및 담론들을 밝히고, 이들 담론들과 연계된 신화 및 이데올로기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한국의 가족문화와 결혼의 특수성

1)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

한국은 구성원간의 응집력이 유난히 강하고 공동운명체로서 가족이 하나의 생존단위로 인식되고 있어 가족집단의 구성원리가 보다 폭넓은 사회단위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주의적 문화특성을

2) 최인자, 「한국 T.V 토크쇼의 서사 담화 패턴과 그 문화적 기능 -주부 대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22, 이중언어학회, 2003, 379쪽.

가진 사회라고 할 수 있다.³⁾ 가족을 개인보다 우선시 하여 가족의 이익에 상반되는 개인의 욕구를 희생할 것을 강조한다. 한국의 가족의식은 대체로 보수적이라고 할 만큼 제도적이고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준다.⁴⁾ 구성원들과 가장 간의 위계와 복종, 가부장의 강력한 권한을 이상으로 삼는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은 위계성과 연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장유(長幼), 준비의 위계와 질서를 강조한다.⁵⁾ 이에 늙고 생활능력 없는 노인들은 효 이데올로기, 직계 이데올로기, 장남 이데올로기에 의존하여 자식들이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⁶⁾ 한국의 직계주의는 장남이 상속을 많이 받는 만큼 제사 및 부모부양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교환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지속되고 있다.⁷⁾

현재 한국사회는 전통적 가족관의 붕괴와 새로운 가족관 정립의 불안정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손자손녀양육을 회피하고 죽기 전까지 재산상속을 반대하며 노후를 보장받고자 하는 부모세대와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결혼관습에 불만을 표하는 젊은 세대가 한 집에서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으며 형제자매간에도 부모부양의 책임으로 인한 갈등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⁸⁾

2) 결혼과 성역할

결혼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 문화적 가치와 믿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제도다.⁹⁾ 실제 사랑과 결혼이 엮이기 시작한 것은 근대 사회 출현

3) 손승영,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지속과 변화-」, 『담론201』9,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260쪽.

4) 김혜영, 「가족의식의 세대적 특성」, 『가족과 문화』17, 가족학회, 2005, 136쪽.

5) 정경민, 「자녀희생효설화에 나타난 “효”와 “모성”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23쪽.

6) 윤형숙, 「연구논문 : 탐진담 수물지역 주민의 가족갈등에 나타난 가족 이데올로기」, 『韓國文化人類學』 34, 한국문화인류학회, 2001, 51쪽.

7) 성미애, 「중년 기혼 남녀의 전통 가족 의례와 제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본 현대한국 가족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 한국가정관리학회, 2012, 109쪽.

8) 김혜영, 앞의 글, 116쪽.

이후의 일이며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게 된 시기도 바로 이때다. 결혼을 통해 가부장적 권한을 부여 받은 남성에게 비해 여성은 수동적이고 섬세하며, 나약하고 직관적이며, 가족을 위해 봉사한다. 이런 특성으로 사회생활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합한 존재이며 여성은 육아, 가사 노동의 집안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성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¹⁰⁾ 한국적 가부장제의 특징인 남녀 성역할의 극단적 분리방식은 핏줄이 다른 가족구성원인 여성 즉, 며느리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면서 가부장과 남성이 독점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의 가치를 높이고 여성과 아이들을 사적 영역에 묶어두었다.¹¹⁾ 결혼과 함께 여성이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되고 여성은 가정에 헌신함으로써 사랑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된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2004년에 이미 50% 이상이 되었고, 이는 공사 영역의 경계가 약화되고 근대적 성별분업이 해체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결국 여성에게 일과 가족 또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해야 한다는 성별화된 규범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¹³⁾ 이에 따른 근대적 성별분업을 정착 시키고자 하는 담론들 또한 많이 제기된다.¹⁴⁾ 새로운 현모양처상은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가족주의와 맞닿아 강력한 역할모형을 만들어 내었다.

9) 최은경·김승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데올로기적 현실 구성과 비판적 성찰의 이중성: 연예인 구혼 리얼리티 프로그램 <골드미스가 간다>의 텍스트 및 수용 분석」, 『한국방송학보』 24, 한국방송학회, 2010, 178쪽.

10) 김승희·백선기, 「제2부 이론과 분석: 텔레비전 드라마의 갈등 표출과 이데올로기적 의미-드라마 「아줌마」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10, 한국기호학회, 2001, 164쪽.

11) 성미애, 앞의 글, 6쪽.

12) 최은경·김승현, 앞의 글, 179쪽.

13) 박홍주·이은아,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가족 경험과 직업의식」, 『한국여성학』 20, 한국여성학회, 2004, 167쪽.

14) 김연주·이재경, 「근대 ‘가정주부’되기 과정과 도시 중산층 가족의 형성」, 『가족과 문화』 25, 한국가족학회, 2013, 33-34쪽.

근대적 성별분업은 ‘주부’의 역할을 이데올로기화하고 자율적 ‘주체’의 신화(myth)를 창안하였다. 세대를 거치며 지속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역할을 모두 경험하는 주체가 되며 그로인해 이데올로기적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2. 한국의 고부관계와 고부갈등

(1) 고부관계의 정의와 특징

고부관계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 남성을 중심으로 비혈연 관계의 두 여성이 법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¹⁵⁾ 결혼을 매개로 한 가족이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다. 다양한 가족 관계 중에서도 고부관계는 가장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관계 중 하나다¹⁶⁾

고부관계는 전 세계 어느 가정에나 존재하고 있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 고부관계의 특수성과 영향이 매우 강한 문화권에 속한다. 가부장제에서의 효와 남녀유별의 윤리적 법도를 가족관계의 규범에 적용하여 상하질서가 존중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며 고부간에도 엄격한 규범의 준수를 강조하며 지배와 복종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¹⁷⁾ 이렇듯 뿌리 깊은 유교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고부관계는 다른 문화권과는 달리 개인사나 가족사를 드러내지 않는 한국인들의 보수적인 특성에 따라 항상 음지에서 거론되어 왔다. 사실상 지배·피지배 관계와도 같은 수준의 상하관계이면서도 문화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선불리 다루기 어려웠다.

15) 성명옥·이혜자, 「시어머니가 지각하는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18, 한국노인복지학회, 2002, 186쪽.

16) Bryant, and Conger, 1999; 김진숙·권석만, 2003; 박소영, 「고부관계에서 남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8, 2010, 152쪽 재인용.

17) 최효일, 「고부 갈등 완화를 위한 탐색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 한국심리학회, 1998, 64쪽.

(2) 고부갈등의 원인과 특징

고부갈등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심리적 충돌과 불만을 나타내는 부정적 태도로 서로 대립되는 욕구와 행동이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것을 이른다.¹⁸⁾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러한 고부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최영순(1999)의 연구에서는 경제적·정서적 권한에 대한 경쟁의식, 주부라는 동일한 역할, 아들을 사이에 둔 며느리와의 심리적 삼각관계, 한국사회 구조의 급변으로 인한 생활방식 차이, 다자간 갈등으로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삼자의 개입을 고부갈등의 원인이라고 보았다.¹⁹⁾ 남세진(1991)은 그의 연구에서 현대가족의 고부갈등 발생 원인이 사회변화 및 그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급격한 세대차이 문제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²⁰⁾ 현대의 며느리 세대는 가족의 중심을 부부로 보고 평등을 강조하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고부갈등을 직면함에 있어 인내해야 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는 이혼의 사유가 될 정도로 부부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²¹⁾

(3) 미디어에 나타나는 고부갈등

그 동안 방송에 다루어지는 고부관계는 대부분이 드라마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매우 과장되거나 일방적인 관계로 묘사되는 수준이었다. 고부관계 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드라마 속의 고부도 예전과 달리 다양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고부를 묘사하는데 있어서는 갈등적 관계에 놓인 고부를 정상적인 고부관계로 상정하고 있다.²²⁾ 드라마 속 여성이 점점 긍정

18) 최효일, 앞의 글, 71쪽.

19) 최영순, 「姑婦, 끝없는 밀고 당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No., 한국사회학회, 1999, 144쪽.

20) 남세진, 「체제이론에서 본 고부갈등」, 『사회복지연구』 3,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91, 7쪽.

21) 이해자, 「시모의 고부갈등 유형화와 관련변인 연구」, 『노인복지研究』 19,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 32쪽.

적이고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을 중심으로 한 삼각관계로 갈등을 겪고, 갈등의 대척점에 또 다른 여성이 존재하는 등의 고정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의 재혼에 대해서도 고민하거나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등의 관여도를 갖는 것으로 묘사되는 수준으로²²⁾ 고부관계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 된다. 반면 기타 방송 프로그램에서 고부관계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 2012년 TV 토크쇼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출연하여 시집살이에 대해 논하는 프로그램이 생겼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집 안 이야기, 특히 시집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TV에서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케이블TV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높은 10%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유교적 전통에 기인한 남성우월주의, 남아선호사상, 남녀차별, 장유관계 등의 특징으로 인해 토크쇼에서 조차 말의 주도권과 범위설정 제 제한을 받는 등 위계질서에 기반을 둔 일정한 패턴이 생기게 되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서열관계가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부갈등이라는 문제를 표면화시킬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화 주체는 결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고 지배집단의 사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디어가 재현하는 고부관계 및 갈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관계의 현실성 여부는 물론이고 개체들이 시도하는 재현의 함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22) 최영순, 앞의 글, 149쪽.

23) 김선영, 「한국 가족의 현실: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이슈」, 『社會科學研究(Journal of Social Science)』Vol.35 No.2,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研究院, 2009, 169쪽.

3. TV 토크쇼의 장르적 특징

1) 토크쇼와 현실 재현

초기 국내 미디어에서는 토크쇼란 장르 자체가 매우 생소했으나 요즘은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장르의 하나가 되었다. 처음 토크쇼가 국내에서 자리 잡을 때는 미국의 포맷을 그대로 베껴오다시피 하여 제한된 소재로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 허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보다도 흥미롭지 못하고 정해진 대본에 의해 진행되는 녹화 프로그램보다도 매끄럽지 못했다.

그러나 국제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서구화되기 시작했고 제한적이었던 소재나 포맷에 대한 압박 또한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유로운 형식의 버라이어티 쇼가 생겨나게 되고 토크쇼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토크쇼는 프로그램의 형식 자체가 서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자연스럽다는 특징이 있고 소재가 다양할수록 그리고 대화에 제한이 없을수록 더욱 흥미워진다. 성, 사랑, 가치관, 정치, 이데올로기, 인종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게 되면서 바야흐로 토크쇼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다양한 출연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은밀히 엿보고 스스로 하지 못했던 말이 TV에서 과감히 화두에 오르는 것을 보며 시청자들은 쾌감을 느끼게 된다. 토크쇼 시청률이 10%대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얻게 되고 토크쇼는 하나의 장르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토크쇼의 흥수를 부추긴 또 하나의 요소는 종합편성채널이다. 종합편성 채널로 인해 기존의 몇 배에 해당하는 다양한 채널이 생겨났고, 초기 시청자 수용을 위해 흥미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산해 내게 됐다. 인기 프로그램 장르 중 하나인 토크쇼는 당연히 많은 방송사들이 앞 다투어 제작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청률을 고려해 흥미위주의 소재와 포맷으로 프로그

램을 경쟁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 지상파에서는 다루지 못하던 소재들까지도 다루게 되었다.

반면 매우 현실적인 장르로 분류되는 토크쇼에도 단점은 있다. 미디어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온전히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방송사의 의도적인 기획 하에 사회·문화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는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²⁴⁾

2) 토크쇼와 일상성

TV 토크쇼는 출연자들이 자기 집에 앉아서 얘기하는 듯 편안한 자세와 태도로 자신들의 결혼이야기, 연애이야기, 주변 이야기 등을 나눈다.²⁵⁾ 이러한 대화전개 방식은 이미 일상성을 확보하고 있다. 요즘에는 소재나 주제의 측면에서도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다양한 소재들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가족관계를 다룬 프로그램들이다. 기존에는 연예인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연예인 가족부터 일반인들까지 출연이 빈번해졌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고부지간이 함께 출연하는 토크쇼까지 생겼다.

이만큼 일상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 현대의 토크쇼지만 한국이라는 문화적·지역적 특성상 가족사에 대한 노출은 이제 없는 일이다. 이렇게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웰컴 투 시월드>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며느리들과 시어머니들 그리고 아들까지도 지금까지 알 지 못했거나 대화하기 꺼려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다른 집과 우리 집의 갈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시택을 지칭하는 ‘시월드’라는 신조어마저 생겼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오랫동안 가려져 왔던 가정사에 대해 표현하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소재

24) 최인자, 앞의 글, 366쪽.

25) 나미수·조준모, 앞의 글, 100쪽.

의 일상화가 이루어지면서 혼자만 느껴오던 감정들에 대해 조금씩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3) 토크쇼와 갈등

토크쇼와 같은 면대면 상황에서의 대화는 대화 참여자들 간의 상호 행위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발화라고 할 수 있다.²⁶⁾ 토크쇼는 공식적인 담화로 논의하기 곤란하거나 가정사적인 주제들에 대해 담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들이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언어적 장치나 전략을 사용해 끊임없이 상호작용 한다.²⁷⁾ 출연자들은 해명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고 있으며, 토크쇼 제작진의 전략적 차원 역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해당 주제들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유도하여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전략을 실천하게 된다.²⁸⁾ 이러한 맥락에서 토크쇼는 대부분의 경우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도록 쟁점화 할 수 있는 논제를 정하게 되며, 이는 진행과정 내내 갈등양상을 보이게 된다. 시청자들은 이러한 대립적 구도를 보면서 자신과 동일한 의견에 감정 이입하여 토크쇼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고부갈등을 다룬 토크쇼 <웰컴 투 시월드>의 경우 기혼여성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역할인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두 가지 역할의 충돌을 통해서 더욱 극적인 감정이입과 몰두를 경험하게 된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결코 마음 편하게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타자의 입을 통해 듣고 간접경험 하면서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26) 장민정, 「토크쇼 대화에 나타난 질문-응대의 전략 분석」, 『텍스트언어학』 Vol.30 No.-,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1, 212쪽.

27) 서경희, 오나연, 오영림, 「TV 토크쇼에서의 담화전략」,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 담화인지언어학회, 2014, 212쪽.

28) 오미영, 「TV 토크쇼에서 나타난 자기노출에 관한 연구: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이끌 어내는가? - <힐링캠프> 조혜련, 홍석천, 장윤정 편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Vol.9 No.2,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2014, 22쪽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를 통해 TV 토크쇼에 나타나는 고부갈등이 어떠한 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 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들에 있어 대립관계를 구성하는 계열체는 어떠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지 또한 그 이면에 담긴 신화는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담론과 신화에 내재된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토크쇼<웰컴 투 시월드>에 나타나는 대립적 담화, 논제와 쟁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이들 쟁점에 대한 대립적 담론 및 신화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고부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다룬 TV 토크쇼의 원조 <웰컴 투 시월드>다.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에서 총 116부작으로 제작하여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 3개월에 걸쳐 방영되었다. <웰컴 투 시월드>에서 ‘시월드’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등 ‘시’자가 들어가는 시댁의 식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며느리’와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주체로 설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고부갈등이 표출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회차별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논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총 116회 중 44회분을 추출했으며, 그 중 3회분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1) 한국의 전통성이 잘 드러나는 주제 2) 일상적 갈등으로 표면화되는 주제 3) 시대변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을 명확히 드러냈는가 이었다. 주요 갈등 주제로는 ‘유전자 친탁·외탁’, ‘남아 선호사상’, ‘시부모 부양’이 선택

되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텍스트로는 스크립트를 이용하였다. 토크쇼의 특성상 대본과 실제 방송된 대화가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해 ‘TV 다시보기’를 통해 반복 시청하며 직접 채록한 스크립트를 사용했다.

2) 분석방법

본 논문은 기호학적 분석방법들을 활용했다. 기호학 분석방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검증된 분석방법들을 선택했다. 적용한 기호학적 분석 방법으로는 범주화분석, 담론분석, 신화분석, 이데올로기 분석이다. <웰컴 투 시월드>의 특성상 각 회차별로 주제가 정해져 있다. 첫 번째로는 주제별 범주화 분석을 적용했다. 두 번째로는 회차별 텍스트 분석을 통해 전체 내용을 갈등에 따른 소주제로 분류하여 비슷한 논제를 다룬 것끼리 재-범주화했다. 세 번째로는 이들 범주들을 근간으로 대립 주체들 간의 계열적 갈등 관계를 파악했다. 네 번째로는 이들 계열적 주체들의 대립적인 담론들을 발견했다. 다섯 번째로는 대립적 담론과 연계된 지배적 신화 및 대안적이거나 대항적 신화를 추구하였다. 끝으로 이들 대립적인 신화들의 내면 구조에 존재하고 있는 지배 및 저항적 이데올로기를 도출하였다.

〈표 1〉 본 연구의 단계적 분석방법 프레임

분석	방법	목표
범주화	주제별 범주화 → 회차별 텍스트 분석 → 갈등에 따른 소주제로 분류 → 비슷한 논 제를 다룬 것끼리 재-범주화	논리적 연계성 획득
담론분석	대립 주체들간의 계열적 갈등 관계 파악 → 계열적 주체들의 대립 담론 발견	맥락적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의미 발견
신화분석	대립 담론과 연계된 지배적 신화 및 대안 적이거나 대항적 신화 추구	내재된 신화의 명확한 양 태발견
이데올로기 도출	대립 신화의 내면 구조에 존재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및 저항 이데올로기 도출	사회적합의 고찰

(1) 범주화 분석

분석대상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범주화 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잘버트(Jalbert), 시그맨(Sigman), 프라이(Fly) 등이 시도했던 방법이 범주화 분석(categorizing research analysis)이다.²⁹⁾ 범주화는 평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빈번히 행하고 있는 활동의 하나다. 범주화 분석은 모든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방법으로서 기호학의 다양한 분석방법들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석방법이다. 범주화 분석은 분석대상을 세분화하여 동일 수준에 위치한 개체나 개념들을 정해놓은 단위나 부류에 귀속시키는 행위이다. 범주화 분석은 분석 대상들에 숨겨진 기호들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어 발견해낸 의미를 기준으로 서로 동일한 수준의 의미단위로 묶어나간다. 또한 하위 범주의 요소들을 특정의 의미기준에 근거하여 큰 범주로 귀속시키면서 논리적으로 연계시킨다.

(2) 담론분석

본 연구에서 진행되는 분석방법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이 담론 분석이다. 대화를 구성되어있는 토크쇼의 장르적 특성상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담론이기 때문이다. 엘렌 벨 · 피터 게렛(Allen Bell & Peter Garrett)은 본인들의 저서를 통해 이데올로기와 권력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올바른 담론분석의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대충 넘어가게 되는 것 또한 담론분석이라고 말했다.³⁰⁾

담론의 개념을 토대로 방법론적 요소가 강한 새로운 학문 영역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반 다이크(Van Dijk)의 ‘담론분석(Discourse Analysis)’과 이를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으로 발전시킨 페어

29) Jalbert, 1983; Sigman & Fly, 1985. 백선기, 『미디어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a, 110쪽 재인용.

30) Bell, A., Garrett, P., *Approches to Media Discourse*, 1998. 백선기 역, 『미디어 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85쪽.

클라우(Fairclough)는 체계적 담론분석 방법을 수립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³¹⁾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데이비드 그레이트배치(David Greatbatch)의 담화분석과 페어클라우의 비판적 담론분석이다. 언어분석은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미흡할 경우 통합분석모델의 구조적 특징상 전혀 다른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정교하게 다뤘다. 언어 혹은 의미론적 형태의 발화(utterance)가 검증되어야 다음 단계의 분석이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분석과정은 텍스트 자체 분석을 시작으로 언어적 구조를 분리 및 통합하여 단어들의 기호로서의 표면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고 문맥적으로 변형되어 지니게 된 유동적 의미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또한 담화의 전개 방식을 보고도 맥락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고정된 텍스트 분석 이외에도 맥락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분석이 수반 되어야 담론분석이 가능하다.³²⁾ 인간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기호의 습득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 상대의 의미를 추정하기도 한다.³³⁾ 이와 같이 텍스트 외적인 요소들인 발화자나 진행자의 어투나 질의-응답 방식 그리고 발화자간의 권력관계 등의 기능을 파악하게 되면, 텍스트 분석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맥락적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3) 신화분석

사람들의 일상은 신화의 영향아래 속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사람들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이처럼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자명한 것이 바로 신화이다.³⁴⁾ 대개의 경우 신화는 표면화 되어 있지 않고 기호의 이면에 숨겨져 있어 그 함의를 찾아내어야 비로소 의도한 바를

31) 백선기, 『보도비평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a, 29쪽.

32) 백선기, 앞의 책, 28-30쪽.

33) 이두원,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성균관대 출판부, 1994.

34) 백선기,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b, 223쪽.

알 수 있다. 신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대표적 학자들 중 첫 번째는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이며 두 번째는 레비-스트로스의 신화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 사회적 개념을 적용시킨 롤랑바르트(Roland Barthes)이다. 레비-스트로스는 신화를 인간 정신의 보편적 구조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보고³⁵⁾ 신화 속에 표현된 많은 상징성을 통해 인간관계나 그들 사이의 위계를 파악 가능하며 더 넓게는 사회상이나 근본 가치관과 신념 등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계된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개념을 범사회적으로 확장시켜 개념화한 바르트는 신화를 하나의 의사소통 체계, 곧 하나의 메시지라고 하였고, 신화가 메시지의 대상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말하는 방식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았다. 신화는 자연화를 통해 독자들 눈에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로 보이게 함으로 독자는 기호학적 의미체계를 보지 못하고 사실체계로 간주하게 한다는 것이다.³⁶⁾ 이렇듯 일반인들이 자명한 진리로 믿으며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을 신화라 정의하고 이 신화들의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내재된 가치관과 신념을 발견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했다.³⁷⁾ 본 연구에서는 바로 바르트의 신화 개념을 근간으로, 신화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고 <웰컴 투 시월드>에 내재된 신화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기호는 크게 언어적 단계와 신화적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표면적으로 확인 가능한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며 이들은 2차적 의미 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신화를 위한 ‘기표’로 전이된다. 신화의 기표는 언어의 기표와 기의 모두를 포함한다. 2차적 단계의 ‘기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화의 ‘내용’ 혹은 ‘개념’이 된다.³⁸⁾ 이 모든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비로소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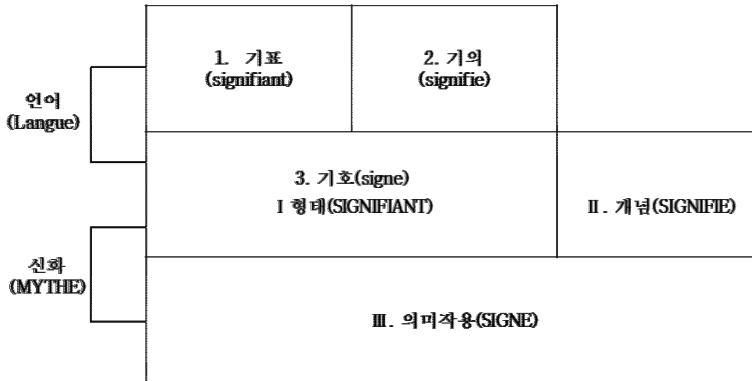
35) 백승국, 윤성노, 「레비-스트로스와 텍스트성」, 『기호학연구』 Vol.24 No.-, 한국기호학회, 2008, 166-169쪽

36) Barthes, R., *Mythologies*, 1957.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 『현대의 신화』, 동문선, 1997, 264~267쪽.

37) 백선기, 『미디어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a, 8~9쪽.

38) 백선기, 앞의 책『보도비평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20쪽.

1차적 단계만으로는 찾아낼 수 없었던 내재된 신화의 명확한 양태를 찾아내게 된다.



[그림 1] 기호의 의미형성의 단계적 과정³⁹⁾

(4) 이데올로기 분석

인간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행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자리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준을 이데올로기라고 한다. 우리가 인지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관여하는 평범한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데올로기의 광의적 의미를 차용해 사회에서 공유되는 다양한 믿음과 가치관이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⁴⁰⁾ 이데올로기를 논하는데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것이 권력에 대한 부분이다. 이데올로기에서 의미하는 권력이란 흔히 생각하는 강제적 힘의 논리에 의한 권력의 획득이 아닌 지배계층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피지배계층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한 권력이다. 이를 위해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의 사고를 그들의 의도대로 조정하려고 하고 그들의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39) 출처 : 백선기(2007a). 미디어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40) Sturken, M., Cartwright, L., *practices of looking an introduction to visual culture*, 2000.

윤태진·허현주·문경원 역, 『영상 문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자연화 된 이념을 피지배 계층에게 심어주게 된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정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상관성이자 가장 큰 특징이다. 여기서 피지배계층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위그룹이 아니다. 이데올로기는 물리적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부분으로 주도그룹과 하위그룹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차이는 관념에서의 이데올로기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집단의 권력 정도와 현실세계에서의 힘의 차이에서 드러나게 된다.⁴¹⁾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고 적응해 간다.⁴²⁾ 결국,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면 사회상을 볼 수 있음을 물론이요 시대상도 파악 가능하게 된다. 기호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 최종심급 의미 단계가 이데올로기다.⁴³⁾ 본 연구의 최종 분석단계도 이데올로기 도출과 연계되며, 사회적 함의를 숙고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웰컴 투 시월드>의 범주화

1) 논제별 갈등소재 분류 및 재범주화

회차별 논제 단위를 하나의 담화가 형성되는 쟁점이 있는 소주제로 선정했다. 스크립트 전문을 분석하여 담화의 소재를 스크립트에 나타난 순서대로 추출하여 나열하면 <표 2>와 같다. 다른 논제들과 비교할 때 ‘시부모부양’은 2배에 가까운 논제가 되어 보다 더 쟁점화된 논제임을 알

41) Barker, C., Galasinski, D., *Cultural Studies and Discourse Analysis: A Dialogue on Language and Identity*, 2009. 백선기 역,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42) 김광현, 「이데올로기: 통시적 및 공시적 고찰」, 『한국 기호학의 미래』, 한국기호학회, 2004, p131

43) 백선기, 앞의 책, 『보도비평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21쪽

수 있다. 물론 회차 간격을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 구성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시간 배분의 변동 등으로 담화가 이루어질 시간이 늘어났을 거란 가정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시간배분은 동일한 수준이었고 괄목할만한 포맷변경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볼 때 ‘시부모 부양’이 현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가장 큰 갈등요소임이 명확해진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항대립관계 분석이 중요하므로 갈등담론이 표출되는 것을 선별하기 위해 탈맥락화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제외했다. 비갈등 소재들은 대개 다수의 의견이 일치되어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출연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의견을 서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담론분석을 진행하게 될 갈등소재는 <표 2>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각 소재별로 7~9가지 수준이다.

〈표 2〉 논제별 갈등소재 분류 및 가지 수 분포

논제	〈5회〉 유전 친탁외탁	〈12회〉 남아선호	〈40회〉 시부모 부양
갈등 담화	① 남녀차별 ② 열성유전형질 부정 ③ 장자선호 ④ 남아선호 ⑤ 친탁선호 ⑥ 외탁비선호 ⑦ 지능	① 능력있는 며느리 ② 여성의 경제력 ③ 임신속설 ④ 아들사랑 ⑤ 임신속설의 폐단 ⑥ 손자손녀 차별 ⑦ 딸의 한	① 시부모부양 당위성 ② 한 집 생활의 갈등 ③ 시부모부양 시점 ④ 실버타운 ⑤ 장남의 의무 ⑥ 부모의 경제력 ⑦ 친정 방문 ⑧ 생활방식의 충돌 ⑨ 자식의 경제력
가지 수	총 7개	총 7개	총 9개
비갈등 담화	① 혈통		① 상속 ② 아들 소유
가지 수	총 1개	없음	총 2개

첫 번째로 ‘유전자 친탁·외탁’에서는 남아선호와 친탁선호, 이 두 가지 논제를 쟁점으로 하여 각 개체들이 대립적 양상을 보이며 갈등을 전개해 갔다. 두 번째로 ‘남아선호사상’에서는 성역할, 임신속설, 남녀차별 세 가지 논제로 범주화 되었다. 성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능력 있는 며느리와 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이 나타났고, 임신속설의 경우 임신속설의 폐단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남녀차별은 아들 사랑, 손자손녀차별, 딸의 한(恨)에 대해 각각의 대립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부모 부양’은 부양 자체에 대한 찬반이 쟁점인 ‘시부모 부양의 당위성’과 부양을 전제로 했을 때 예상되는 ‘부양으로 인한 문제’로 나타났다.

〈표 3〉 논제별 갈등소재의 재범주화

유전친탁·외탁 논제	남녀차별로 인한 갈등 장자선호로 인한 갈등 남아선호로 인한 갈등	⇒	남아선호
	열성유전형질 부정 친탁선호로 인한 갈등 외탁비선호로 인한 갈등 지능(스펙)으로 인한 갈등	⇒	친탁선호
남아선호 논제	능력 있는 며느리로 인한 갈등 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인식차이	⇒	성역할
	임신속설로 인한 갈등 임신속설의 폐단	⇒	임신속설
	아들사랑으로 인한 갈등 손자손녀 차별의 갈등 딸의 한(恨)에 대한 담화	⇒	남녀차별
시부모 부양 논제	시부모 부양에 대한 갈등 시부모 부양 시점에 대한 갈등 부양 대안(실버타운)에 대한 갈등 장남의 의무에 대한 갈등 친정 방문으로 인한 갈등	⇒	시부모 부양의 당위성
	한 집 생활로 인한 갈등 부모의 경제력에 대한 갈등 생활패턴 충돌로 인한 갈등 자식의 경제력으로 인한 갈등	⇒	시부모 부양의 문제

2. <웰컴 투 시월드>의 담론분석

<표 2>, <표 3>을 근간으로 하여 논제별 스크립트에서 갈등소재가 나타나는 부분의 대화를 발췌하여 각각의 담화분석을 통한 대안·대립 담론을 밝혀냈다. 첫 번째로 각 논제에 속하는 이항대립의 계열 주체를 찾고, 계열 주체들 각각의 발화 방식과 특징을 파악했다. 이어서 계열 주체들 상호간의 대화를 분석하여 주장과 내재된 함의가 무엇인지를 밝혔으며, 내재된 담론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냈다. 담론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지배적 담론과 대안적 담론

지배 담론	대안 담론	대립 담론
남성우월 담론, 남아선호 옹호 담론, 남존여비 담론, 아들중심사고 합리 담론, 장자우위 담론, 자식의 의무이행 당위 담론, 모자유착관계 합리 담론, 조기교육 합리 담론, 친탁선호 합리 담론, 친탁우월 담론, 노부모/편부모 부양의 당위 담론, 부모극진봉양 당위 담론, 부모공경 필요 담론, 부모부양 당위담론, 부모동정 담론, 모성본능 담론, 성역할 수용담론, 성역할 합리화 담론, 양가차별 담론	무분별한 남아선호 비판, 부모부양의 대안 지지, 부모 노년경제력 필요성 지지	남아선호 부당 담론, 부모부양의 무 부정 담론

분석결과 지배적 담론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부분 남성우월, 남아선호, 장자선호, 친탁우월 및 부모부양의 당위성 등 지배층의 사고를 타당화하고 기존가치관을 합리화 하려는 의도의 담론들이 주를 이뤘다. 반면 대안적 담론은 남아선호 비판이나 부모의 경제력 필요 담론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것은 대립집단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위계적 관계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 담론을 형성하는 시어머니 세대에 대해 대안적 담론을 형성하는 집단은 며느리가 된다. 그러나 며느리는 권력계층의 상이함으로 인해 시어머니와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담론분석을 통해서도 대립담론을 파악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담론분석은 실제로 사용된 언어에 비중을 두고 분석결과를 도출해 낸다. 이는 매우 정교하고 정확한 결과를 보장하지만 문화적 특수성이 수반되는 논제의 경우 발화자가 자연스럽게 모든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는 제한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면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히 지배담론과 대립담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객체별 주된 특성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객체들의 언어를 통해 대안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시부모의 무조건 적인 남아선호가 근거 없는 부당함이라 비판하는 것, 부모들이 늙으면 반드시 자식과 살기 보다는 실버타운 등의 다양한 대안이 존재함으로 이러한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부모가 자식에게 대접 받고 싶다면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부양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등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어머니 집단의 입을 통해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변화하는 사고방식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3. <웰컴 투 시월드>의 신화분석

앞에서 고부간 갈등 담론이 형성됨을 보았고, 도출된 담론을 바탕으로 신화분석을 진행한 결과 <표 5>와 같이 다양한 이항대립신화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담론분석에서는 모든 논제에 대한 담화에 갈등관계가 성립하는 듯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갈등담론이 정확히 같은 비율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화는 지배적 신화와 대안적 신화가 거의 동일한 비율로 표출되는 특징을 보인다. 대안적 신화가 대립일 수도 있고 대안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항대립의 구도를 통한 이데올로기 도출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대립과 대안적인 상황을 모두 지배적 신화에 대한 대안으로 보고 상위개념인 대안적 신화의 범주에 귀속시켰다. 담론분석을 근간으로 한 신화분석에서 대립항들의 대립적 상황이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며느리들의 사고가 어떠한지 예측 가능하다. 이항대립적 신화는 갈등구조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어떠한

대립상황이 있는지, 어떠한 주체들이 대립하고 있는지, 주체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신화를 발견해 내면 이데올로기도 도출해 낼 수 있다.

〈표 5〉 지배적 신화와 대안적 신화

지배적 신화	대안적 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식은 부모부양의 의무가 있다. • 자식은 함께 사는 부모를 극진봉양 해야 한다. • 부모가 늙거나 아프면 자식이 부양해야 한다. • 부모부양은 부모 경제력과 무관한 의무이다. • 자식은 부모의 생활패턴에 맞춰야 한다. • 경제력은 효와 무관한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부양은 자식의 의무가 아니다. • 함께 사는 부자지간은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 부모님 노후는 자식이 아니더라도 실버타운 같은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 부모부양에는 부모의 경제력이 필요하다. • 일방적으로 부모 생활패턴에 맞추기는 힘들다. • 경제력이 있어야 무엇이든 대접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탁한 자식에게 애정이 더 간다. • 좋은 것은 친탁 나쁜 것은 외탁이다. • 시댁은 손자의 친탁을 선호하고 바란다. • 애들은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탁한 자식은 예쁨 받지 못하고 차별 당한다. • 좋고 나쁜 것은 친탁외탁과 무관하다. • 친탁외탁은 결정 불가하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 애들에게 조기교육을 과하게 시킬 필요는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들이 딸보다 더 좋다. • 요즘 부모들은 반드시 아들을 바라지는 않는다. • 남자가 잘 되어야 한다. •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해야 한다. •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 • 엄마는 항상 아들에 대한 권리가 있다. • 시부모 부양은 장남의 당연한 도리이다. • 며느리는 친정 출가외인으로 시댁만 챙기면 된다. • 남존여비사상은 어디든 존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의 차이가 선호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시부모님은 아들을 원한다. • 남녀가 다 잘되면 좋다. • 여자도 경제력이 있으면 더 좋다. • 아들딸 구분 말고 순리대로 낳아야 한다. • 기혼아들은 독립가정의 가장으로 인정해야 한다. • 반드시 장남이 시부모부양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시댁을 챙겼으면 친정도 챙겨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은 결국 팔자대로 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은 없다.

4. 〈웰컴 투 시월드〉의 이데올로기

범주화 및 담론분석을 바탕으로 갈등담론을 도출해 내었고 그로부터 내재된 신화를 찾아냈다. 최종적으로 이 대립신화를 토대로 고부갈등을 야기하는 숨겨진 이데올로기는 무엇인지를 발견해냈다. 지배적 신화를 통해 지배계층에서 자연화하려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 각각을 대립적으로 분류하면 <표 6>이 제시한 바와 같다.

〈표 6〉 지배적 신화로부터 도출된 이데올로기

지배적 신화	이데올로기
남자가 잘 돼야 한다.	
며느리는 친정의 출가외인이므로 시댁만 챙기면 된다.	
좋은 것은 친탁 나쁜 것은 외탁이다.	
시댁은 손자의 친탁을 선호하고 바란다.	⇒ 가부장주의
친탁한 자식에게 애정이 더 간다.	
시댁은 외탁을 싫어한다.	
시부모 부양은 장남의 당연한 도리이다.	
부모는 아들에 대한 권리가 있다.	⇒ 가족주의
자식은 부모의 생활패턴에 맞춰야 한다.	
친정에서마저도 남존여비사상이 존재한다.	⇒ 남성우월주의
아들이 딸보다 더 좋다.	
시부모님은 아들을 원한다.	⇒ 남아선호사상
아들을 낳아야 한다.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해야 한다.	⇒ 성역할
자식은 부모부양의 의무가 있다.	
자식은 함께 사는 부모를 극진봉양 해야 한다.	
부모가 늙거나 아프면 자식이 부양해야 한다.	⇒ 효사상
부모부양은 부모 경제력과 무관한 의무이다.	
경제력은 효와 무관한 것이다.	

부계사회의 중심사상인 가부장주의, 가족(집단)이 개인에 우선한다고 여기는 가족주의, 남성이 여성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남성 우월주의,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선호사상, 남자와 여자는 각각 정해진 역할이 있다고 주장하는 성역할 고정관념 등이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들은 구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현재에도 대부분의 시어머니의 사고에 아직도 자리잡고 있다.

반면 비등한 수준은 아니지만 대립되는 이데올로기도 발견됐다. 여기서의 대립은 구조적 대립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해결책의 성격을 지닌 대안 이데올로기로 전이될 수 있다.<표 7>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양성평등 사상, 신가족주의, 자본주의, 합리주의 사상이 내재되어 있으며 주로 지배이데올로기를 가진 시어머니들 보다는 대립관계에 있는 며느리들의 주장에서 드러났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세대 간의 이데올로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표 7〉 대안적 신화로부터 도출된 이데올로기

대안적 신화		이데올로기
남녀가 다 잘되면 좋다.		
시댁을 챙겼으면 친정도 챙겨야 한다.	⇒	양성평등
성별의 차이가 선호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혼아들은 독립된 가정의 가장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부모 생활패턴에 맞추기는 힘들다.		
부모부양은 자식의 의무가 아니다.	⇒	신가족
함께 사는 부자지간은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야 한다.		
부모님 노후는 실버타운 같이 자식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여자도 경제력이 있으면 더 좋다.		
부모부양에는 부모의 경제력이 필요하다.	⇒	자본주의
경제력이 있어야 무엇이든 대접받을 수 있다.		
유전형질의 좋고 나쁨은 친탁외탁과 무관하다.	⇒	합리주의
친탁외탁은 결정이 불가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립 이데올로기들을 이중구조로 구조화 하면, 지배 이데올로기는 시어머니들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서 가부장 이데올로기와 효 이데올로기이다. 반면에 대립 이데올로기는 며느리들 사고를 지배하는 것으로서 양성평등과 합리주의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두 집단은 상반된 이데올로기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하다.



[그림 2] 이중구조의 대립적 이데올로기

어느 시대를 살더라도 기존사고와 신사고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 고부갈등 역시 오랜 기간을 지배적으로 자리해 온 사상과 새로운 사상의 충돌로 인해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단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층 간 권력 정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립 담론, 신화, 이데올로기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며, 어느 시점이 되면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극복 가능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배 계층에서도 대안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주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시어머니들 중에도 아들과 며느리의 정형화된 성역할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를 수용하며,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경우가 있

다. 직면한 시대적 변화와 추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통해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지배 이데올로기의 변화가능성을 엿보게 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한 것은 고부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는가이다. 이러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차이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치관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행동의 차이는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그림 3]과 같이 지배적 사고로 대표되는 시부모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에 따라 가정 내의 아들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입지를 강화하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며느리의 순종적 태도를 요구한다. 또한 효 이데올로기에 따라 자식들에게 부모공경을 기본으로 한 효도를 강요하고 있다.

논제 범주	남아선호, 친탁선호	남녀차별	시부모 부양
	↓	↓	↓
담론	남아선호 장자우위 모자유착 친탁선호 친탁우월	남성우월 남존여비 성역할 합리화 양가차별	시부모부양 당위성 노부모 동정 자식의 의무
	↓	↓	↓
신화	아들을 낳아야 한다. 자식의 장점은 친탁, 단점은 외탁한 것이다.	남자가 잘 돼야 한다. 여자는 살림을 해야 한다.	아들은 반드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	↓	↓
이데올로기	가부장주의 남아선호사상	남성우월주의 성역할 고정관념	효사상 가족주의

[그림 3] <웰컴 투 시월드>의 지배 신화 및 이데올로기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며느리들의 사고에도 지배력을 갖는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며느리들에게는 [그림 4]와 같이 양성 평등 이데올로기와 합리주의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대안적 사고를 대표하는 며느리는 남녀평등사상을 교육받으며 자라온 세대로 이념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남녀불평등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다. 며느리 세대에게 있어 시어머니 세대와의 가치관 대립은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요구하는 갈등 상황이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들의 희망과는 달리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서 남편과 동등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며느리 세대는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익숙해 있어 추상적 개념에 의한 행위를 강요당할 때 반발심을 갖게 된다. 단지 절대적 권력이나 권위자와의 대립상황에서 스스로 행동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데 한국의 고부관계가 그러한 효력을 발휘하는 권력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부관계는 다양한 가족관계 중에서도 위계질서가 강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위에 도전이 어렵다는 상황적 특수성이 발생한다. 이 두 집단은 표면적 대립을 피하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극단적인 대립 이데올로기가 혼재하고 있어 고부갈등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도출해낸 결론은 문화적 이해가 수반되면 쉽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측이 어렵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실제의 상황에서 고부간에 무슨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론에서는 범접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추론적 갈등 관계와는 별도로 이들 사이의 대립관계에서도 완충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 해당되는 대안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시어머니들이 바로 그 완충의 주체들이다. 며느리와 유사한 가치체계를 가진 시어머니의 존재는 대립개체간의 갈등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논제 범주	남아선호, 친탁선호	남녀차별	시부모 부양
	↓	↓	↓
담론	무분별한 남아선호 비판 근거 없는 친탁외탁론 비판	남존여비사상 비판 성역할 비판	시부모부양 의무 부정 노년 경제력 필요성 부양의 대안 지지
	↓	↓	↓
신화	성별의 차이가 선호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전형질의 좋고 나쁨은 친탁외탁과 무관하다.	남녀가 다 잘되면 더 좋다. 여성이 경제력이 있으면 더 좋다.	부모부양은 자식의 의무가 아니다. 실버타운 같이 다양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부모부양에는 부모의 경제력이 필요하다.
	↓	↓	↓
이데올로기	합리주의	양성평등	신가족주의, 자본주의

[그림 4] <웰컴 투 시월드>의 대안 신화 및 이데올로기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이 오랫동안 가부장제 사회였으며 현재에도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이념들과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고부관계 자체로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시어머니들은 권위를 이용해 며느리들에게 전통적 사고에 기인한 성구별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려고 하며, 며느리는 권력구조의 하위집단으로 가부장제의 유지와 효의 이행을 위한 강제 행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고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방법은 상반된 가치관을 가진 두 계열 주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주체들에서 주체별 특성에 따른 이데올로기와 일치하지 않는 특이성을 찾을 수 있다. 시어머니이면서 며느리와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주체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의 사고 변화과정을 통해서 서로간의 이해를 돕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배집단에 속하는 동시에 신사고를 하는 대안적 주체가 존재함을 발견해 냈으며, 이들의 존재를 통해 고부갈등의 해결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음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광현, 「이데올로기: 통시적 및 공시적 고찰」, 『기호학연구』16, 한국기호학회, 2004, 115-134쪽.
- 김선영, 「한국 가족의 현실: 생애주기에 따른 가족 이슈」, 『社會科學研究(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5 No.2, 慶熙大學校 社會科學研究院, 2009, 161-193쪽.
- 김승희·백선기, 「제2부 이론과 분석: 텔레비전 드라마의 갈등 표출과 이데올로기적 의미-드라마 「아줌마」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10, 한국기호학회, 2001, 157~195쪽.
- 김연주·이재경, 「근대 ‘가정주부’ 되기 과정과 도시 중산층 가족의 형성」, 『가족과 문화』25, 한국가족학회, 2013, 29~61쪽.
- 김혜영, 「가족의식의 세대적 특성」, 『가족과 문화』17, 가족학회, 2005, 115~146쪽.
- 나미수·조준모, 「시대 흐름에 따른 TV토크쇼의 특성변화에 대한 연구: KBS 토크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연구』15,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75~105쪽.
- 남세진, 「체제이론에서 본 고부갈등: 부체계와 고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91, 1~17쪽.
- 박소영, 「고부관계에서 남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8,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10, 151~186쪽.
- 박홍주·이은아,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가족 경험과 직업의식」, 『한국여성학』 20, 한국여성학회, 2004, 141~178쪽.
- 백선기, 『텔레비전 문화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_____, 『대중문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_____, 『미디어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a.
- _____,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b.
- _____, 『보도비평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a.
- _____,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2』.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b.
- _____, 『광고기호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c.
- 백승국, 윤성노, 「레비-스트로스와 텍스트성」, 『기호학연구』Vol.24 No.-, 한국기호학회, 2008, 161-214쪽.
- 백진아, 「기혼 남성의 부성과 가족 경험」, 『현상과 인식』33,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9, 163~186쪽.
- 서경희, 오나연, 오영림, 「TV 토크쇼에서의 담화전략」,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

- 대회 발표논문집』4, 담화인지언어학회, 2014, 203-213쪽.
- 성명옥·이혜자, 「시어머니가 지각하는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硏究』18, 한국노인복지학회, 2002, 185~206쪽.
- 성미애, 「중년 기혼 남녀의 전통 가족 의례와 제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본 현대 한국 가족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30, 한국가정관리학회, 2012, 103~114쪽.
- 손승영,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사-지속과 변화」, 『담론201』9,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 245-274.
- 오미영, 「TV 토크쇼에서 나타난 자기노출에 관한 연구: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 <힐링캠프> 조혜련, 홍석천, 장윤정 편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Vol.9 No.2,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2014, 119-148쪽.
- 윤형숙, 「연구논문: 탐진담 수물지역 주민의 가족갈등에 나타난 가족 이데올로기」, 『韓國文化人類學』34, 한국문화인류학회, 2001, 31~59쪽.
- 윤태진·허현주·문경원 역, 『영상 문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_____,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성균관대 출판부, 1994, 89-93쪽.
- _____, 「TV 토크쇼 진행자의 언어적 스타일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Vol.-No.6, 한국방송학회, 1995, 5~39쪽.
- 이은경, 「TV드라마 <나도야 간다> 에 나타난 여성」, 『드라마연구』Vol.30 No.25, 한국드라마학회, 2006, 233-256쪽.
- 이혜자, 「시모의 고부갈등 유형화와 관련변인 연구」, 『노인복지硏究』19,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 31~59쪽.
- 장민정, 「토크쇼 대화에 나타난 질문-응대의 전략 분석」, 『텍스트언어학』Vol.30 No.-,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11, 211-236쪽.
- 정경민, 「자녀희생효설화에 나타난 "효"와 "모성"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5~42쪽.
- 최영순, 「姑婦, 끝없는 밀고 당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Vol.-No.-, 한국사회학회, 1999, 144-150쪽.
- 최은경·김승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데올로기적 현실 구성과 비판적 성찰의 이중성: 연예인 구혼 리얼리티 프로그램 <골드미스가 간다> 의 텍스트 및 수용 분석」, 『한국방송학보』24, 한국방송학회, 2010, 175-219쪽.
- 최인자, 「한국 T.V 토크쇼의 서사 담화 패턴과 그 문화적 기능 -주부 대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22, 이중언어학회, 2003, 365~380쪽.
- 최효일, 「고부 갈등 완화를 위한 탐색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3, 한국심

- 리학회, 1998, 64~73쪽.
- 우치다 타츠루, 2002. 이경덕 역,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갈라파고스, 2010.
- Barker, C., Galasinski, D., *Cultural Studies and Discourse Analysis: A Dialogue on Language and Identity*, 2009. 백선기 역,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Barthes, R., *La Plaisir du texte/Lecon*, 1957.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1997.
- Barthes, R., *Mythologies*, 1957.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역, 『현대의 신화』, 동문선, 1997.
- Bell, A., Garrett, P., *Approches to Media Discourse*, 1998. 백선기 역, 『미디어 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Griffin, E., *A first look at communication theory*, 2003. 김동윤 · 오소현 역, 『첫눈에 반한 커뮤니케이션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 Harvey, D., *The condition of post modernity*, 1989. 구동회 · 박영민 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1994.
- Sturken, M., Cartwright, L., *practices of looking an introduction to visual culture*, 2000.

TV talk show, conflicts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and sub-cultural implications:

- A Discourse analysis on 〈Welcome to mother-in-law〉,
a TV Talk show, in Korea

Kang, Kum-Ryang · Baek, Seon-Gi

This study was purposed to investigate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i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in Korean society. In-law conflict existed in each family all over the world but it was only matter of seriousness. Mother-in-Law tensions particularly bring day-to-day problems with daughter-in-law. A Korean talk show titled as 'Welcome to the mother-in-law' dealt with this everyday controversies between them. the authors concerned and selected it as a main research object for analysis as it appeared to represent many Korean traditional characteristics. the common characteristics in Korea culture was traditional hierarchy in the family structure. Unease feelings amongst family members often prevailed owing to the conflicting nature of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them. Many episodes of this talk show were analyzed through integrated model consisting of semiotic methods including: categorization, discourse analysis, myth analysis, and Ideology derived. As some result, this study revealed an implicit ideology centered on the opposition thought processes. Patriarchal and filial duty ideology was dominantly located in the mother-in-law's thought. Meanwhile, gender equality and rationalism ideology was dominantly located in the daughter-in-law's thought. Difference in values, esulting from opposed ideologies, could also explain why intergenerational disputes and conflicts occurs.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re was a potential possibility for further conflicts around the issues of traditional patriarchal practices and gender un-equality as well as different attitudes held by different generations in a family. in short, eventhough this talk show could not provide some suggestions to resolve such

conflicts between them, it could be worthwhile to uncover serious problems between them.

Key word : conflict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discourse, myth, ideology, talk show

투고일 : 2016. 11. 25. / 심사일 : 2016. 11. 27. / 심사완료일 : 2016. 12. 10.